

“고향 좋아한 고인 기억” “형 뜻 기리고 싶어”

●제주항공 희생자 가족·지인 후원 잇따라

故 천병일씨 형제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도 기탁 KIA 타이거즈 직원도 “고인, 평소 후원 당부” 디시민모임 후원

“고향을 좋아했던 병일이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세상을 떠난 故 천병일씨의 형과 동생이 고인의 이름으로 영암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천씨의 동생 형 병갑씨와 동생 병현씨는 최근 영암군청을 찾아 “고향을 좋아했던 병일이를 누구는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사진>

고인의 장례를 치른 형제들은 살아생전 병일씨의 고향 사랑을 기억하며 고향 사람들이 고인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천씨 삼형제는 영암읍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고등학교까지 고향에서 마

쳤다. 이후 각자 광주와 무안 등지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지만, 평소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던 형제들은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는 영암을 수시로 찾아 부모님의 일을 돕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눴다.

삼형제 중에서도 고인의 고향 사랑은 남달랐다. 동생 병현씨는 “작은형은 저나 큰형보다 더 자주 영암을 왔었고, 친지들도 각별히 챙겼다”고 전했다.

병현씨는 “하늘에 있는 작은형도 우리의 결정을 기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형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따른 답례품도 고향인 영암읍의 민관복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하며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형제의 기부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담아 고인을 기리는 뜻깊은 방식”이라며 “기부금이 고향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또 다른 희생자인 KIA 타이거즈 직원의 직장 동료인 이모씨는 최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형을 생각해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싶다”며 50만원을 후원했다.

이씨는 “얼마 전 장례를 마치고 고인의 어머

니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돈을 받았는데, 희생자가 종종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동원돼 일생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려주며 기회가 되면 꼭 후원하라고 권유했었다”며 “이렇게라도 형의 마음을 기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국인 시민모임 대표는 “뜻밖의 전화에 마음이 아프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며 “단체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후배들에게 비전 제시·영향력 있는 선배 되고파”



졸업 앞둔 동강대 임상병리학과 조정화씨 ‘전문대학생 수기 공모전’ 장려상

“원하는 커리큘럼에 맞는 학과를 모색한 끝에 동강대 임상병리학과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역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후배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영향력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 달 졸업을 앞둔 동강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조정화(46·사진)씨는 최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가 주최한 ‘2024년 전문대학생 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19일 동강대학교에 따르면 서울 토박이인 조씨는 중앙대를 졸업하고 대학의학 분야 박사학위를 밟던 중 인생의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인생은 역주행도 멋있다’는 수기의 주제처럼

대학에 다시 입학하기로 한 것이다.

조씨는 “뿌리가 부실하면 열매가 풍성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한다. 솔직히 박사학위 수업이 좀 힘들었다. 기초 지식의 부족함을 느꼈고 당시 임상 연구에도 관심이 있어 다시 공부하기로 맘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전국의 대학 정보를 수집했고 동강대 임상병리학과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찾았다.

조씨는 “지난 2022년 2학년으로 편입한 뒤 원하는 방향의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시설이나 실습 등 실무에 적합한 인프라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김다기 기자

조씨는 ‘U턴 학생’으로 4년제 학사학위를 주는 전공심화 과정까지 소화하며 외부에서 다수의 상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3년 한국임상병리학과교수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의료진단검사학회(Society for Medical Diagnostic Laboratory: SMDL)’ 논문경진대회에서 ‘천년초 추출물이 멜라닌 생합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다.

조씨는 전공심화과정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연구논문 포스터 3편을 발표해 포스터 우수 학술상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조씨는 KCI학술지인 한국보건기초의학회에도 ‘자생식물 꽃 추출물의 항산화능 및 멜라닌 생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하는 등 항산화 및 미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조씨는 “앞으로 진단검사학에 쫓아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알리는 데 힘쓰고 싶다”고 말했다. /김다기 기자



김수관 광주수치과 원장, 동신고총동창회장 취임

김수관(사진 오른쪽) 광주수치과 원장이 광주 동신고총동창회장장에 취임했다.

동신고총동창회는 지난 17일 광주 서구 차평동 JS컨벤션에서 2025년 정기총회 및 총동창회장·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제22대 조영종 회장이 이임하고 김수관 원장이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김 회장은 이날 총동창회에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025년에는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 동창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면서 “재경동문회, 지역동문회는 물론 동신포럼, 산악

회, 범두회와 협력해 동문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회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수관 회장은 1989년부터 36년 동안 국내외 의료봉사는 물론 현재까지 1천800회의 기부 및 봉사활동을 시행해 그 수혜자가 5만여명에 이르는 등 지역 대표 기부천사로 명성이 높다. 개인 기부액만 2억여원에 이르며 고액기부자들이 이름을 올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소사이터티’ 클럽, 대한적십자사의 ‘레드크로스아너클럽’,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그린노블클럽’, 유산기부자모임의 ‘그린레거시클럽’ 등에 모두 등재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다기 기자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시산들제 행사

(사)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이사장 박성수) 회원 60여명은 지난 1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산유원지 일원에서 제80회 정기걷기모임 및 시산들제 행사를 가졌다. 회원들은 송산유원지 주차장에서 출발해 청동보까지 걸은 후 시산들제를 지내고 해산했다. <빛고을산들길사랑모임 제공>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 영산강사업단서 업무 보고회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최근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방문, 2025년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병호 사장은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 문화를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불경기 타격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업무효율성 증대, 비용절감 등 직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기술의 적극적인 수

용과 AI 등의 급진적 발전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박형수 영산강사업단장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회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서로 배려하고 청렴한 조직 확립과 안전한 업무 수행에 중점을 두겠다”며 “올해 42억원의 예산 집행을 통해 고객 만족과 지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농어촌공 담양지사, 농지은행사업 홍보 캠페인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담양공용버스터미널과 담양오일장을 방문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홍보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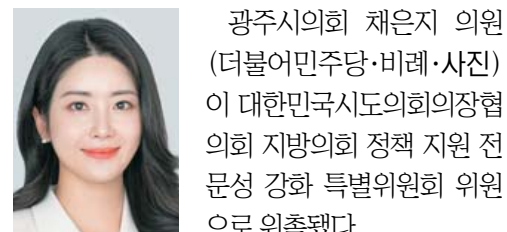
김건경 담양지사장을 비롯한 서원진 농지은행관리부장, 김태은 농지은행관리부 과장 및 직원 등은 농지은행사업 안내문과 홍보용 물티슈를 배부하며 시행 사업들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지양양농지은행사업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관심에 신경 요건, 보조금 지원 단계 등 구체적인 상담이 이뤄지기도 했다.

김건경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장은 “농지



이양양농지은행사업은 농업에 헌신해온 고령은퇴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많은 농업인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채은지 광주시의원 시도의회장협 정책특위 위원 위촉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이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19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기구로 임기는 오는 6월30일까지다. 채은지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문인력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이며 “정책전문지원인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씨월드고속훼리 설맞이 이웃사랑 성금 기탁

씨월드고속훼리㈜는 19일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7일 목포시청을 방문, 이웃사랑 성금 3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금은 목포복지재단을 통해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다. 씨월드고속훼리㈜는 매년 목포시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발전기금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남지방경찰청 범범품 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범죄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과 사후 관리를 위한 후원금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주)회장은 “이번 성금이 겨울 추위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씨월드고속훼리(주)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광주 남부소방 설 대비 응급의료기관 간담회

광주 남부소방서는 19일 “지난 17일 남구 지역 응급의료센터인 기동병원을 방문해 설 명절 구급대응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하고 비상 대응 주간 응급환자 이송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설 연휴 응급환자 진료 협력 등 응급의료 체계 개선방안 논의 ▲구급대 이송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협조 요청 ▲응급의료센터 간 소통 강화를 통한 정보 공유 ▲병원 및 구급대원 예로사항 청취 ▲119인실용 가입안내 및 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강구 등이다.

박충훈 남부소방서장은 “간담회를 통해 소방과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며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

인사
기상청 ◇고위공무위원대승진
▲광주지방기상청장 합동주